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8일 화요일 (음 6월 17일)

제 18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폭염속 채소류 가격 급등 소비자 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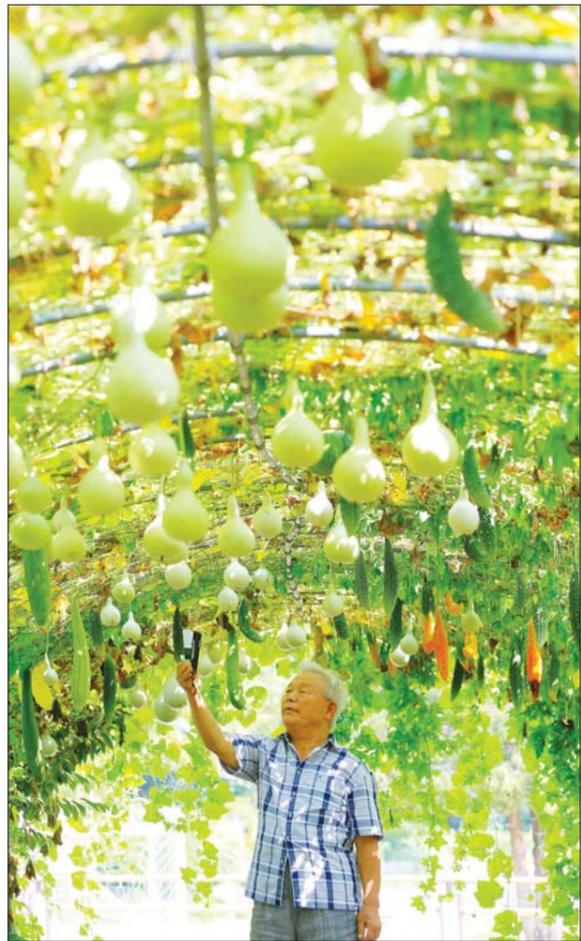
7월 기준 오이·시금치·배추값, 최소 43%에서 최대 54%로 크게 올라
계속된 폭염·폭우로 인한 채소 출하 차질로 공급량 줄어든 것이 원인

지난달 오이와 시금치, 배추 등 채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 포털인 참가격을 통해 7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월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 10개 중 5개가 신선식품이었으며, 가공식품 1개, 일반공산품 4개로 나타났다. 국내산 오이 1개 가격은 858원으로 전월 대비 54% 치솟았고 시금치 100g(국내산) 가격도 46.2% 오른 744원을 기록했다. 이어 배추 1포기(43.6%), 호박(34%) 등의 가격이 뛰었다.

가공식품은 병통만두(6.7%), 일반공산품은 린스(34.8%), 삼푸(17.3%)·염모제(10.8%)·세면용비누(8.0%)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채소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며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채소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이와 시금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각각 44%, 16.6% 이상 상승했다. 계란(1개)과 감자, 오징어(2마리)도 같은 기간 35~42% 올라 가격 고평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10개 품목 중 5개는 신선식품이었으며, 가공식품 2개, 일반공산품 3개였다. 신선식품은 갈치(-23.3%), 감자(-13.6%), 양파(-9.7%), 당근(-5.1%), 마늘(-4.0%)이 하락했으며, 가공식품은 단무지(-5.8%), 캔커피(-4.6%), 일반공산품은 치약(-6.9%), 구강청정제(-6.4%), 갑티슈(-4.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별로 보면 감자, 양파 등은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으며, 치약은 백화점이, 단무지·캔커피 등은 대형마트가, 갈치는 SSM이 상대적

으로 저렴했다. 한편, 올해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계란(0.5%)·오징어(0%)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한 결과, 오이(44.0%), 계란(42.5%), 감자(35.6%), 오징어(35.5%), 호박(31.8%), 무(23.9%) 등이 상승했으며, 삼푸(-20.1%), 린스(-17.4%), 물휴지(-16.0%), 핸드로션(-14.8%), 마늘(-11.3%), 베이비로션(-11.3%)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조롱박 밑에서 잠시 피하는 더위
절기상 입추(立秋)인 7일 오후 전주시 용정동 우리밀영농조합 법인 텃밭에서 한 관계자가 박과채소가 달려있는 하우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학생들이 만든 '신한류' 이탈리아를 유혹하다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신한류 축제를 통해 한류 문화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건)이 이번엔 이탈리아에서 9번째 신한류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 전통 한지를 주제로 한 'Vivere la carta Hanji(한지를 느끼다)'를 주요 테마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달 14일 시작돼 2주 남짓 이탈리아 곳곳을 한류로 물들였다.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으로 나누어진 5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오감으로 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시각 부스의 한지 한복, 한지 공예품 전시를 통해 실제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여 현지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국문화가 생소한 지역인 페루지아 외국인 대학교에서 이날 막을 울려 현지인들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뒤 19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페스티벌을 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7월 26일과 27일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기를 이어



한복을 입은 이탈리아 페루지아 학생들.

전북대 '신한류페스티벌' 이탈리아 곳곳에 큰 호응
한지 한복 전시 등 통해 한지의 우수성 전파

불리는 로마 포폴로 공장에서 마지막 페스티벌을 개최해 현지인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마에서 진행된 두 번의 페스티벌 모두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과 공동협업과 로마시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이탈리아의 중요문화재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 '카르톨라'가 한지로 복원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한지를 중요 문화재 복원재료로 공식 인증한 것과 관련, 이번 축제를 통해 한지의 우수성을 현지 일반인들에게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정해은 기자

'천덕꾸러기' 현웃 수거 전주시, 처리대책 추진

현웃의 수출시장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전주시가 현웃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 의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을 유도할 예정이며, 원형을 유지하는 재이용보다는 보조연료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현웃수거업체에서 사회기여의 일환으로 무상 수거해 자가비용으로 처리해온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현웃수거함 주변에 불법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소형가전제품은 무상수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생활가전협회로 수거업무를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품목 이외에 자부담으로 처리하던 수거함 주변 불법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해 공공용쓰레기 봉투 또는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대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폐의류는 원형으로 재이용되는 만큼 다시 사용이 어려운 상태의 의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

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중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삼성언론기획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여름휴가 핫 플레이스! 진안 라이산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제9회 동향면 수박축제 2017. 8. 5. ~ 8. 6. (2일간) 진안군 동향면체련공원

- 마이산
- 진안고원
- 마이산농촌테마공원
- 마이산생강재
- 가위박물관
- 운장산계곡
- 진안테라세웨이아카로수길
- 윤일밭농원
- 복운계곡
- 진안홍삼스파